

누구나 바빠 보인다. 조금씩 때문일까. 조금씩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급언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의례적 길을 잘못 든 사람이 재촉하는 법이다. 그러다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찾는 경우도 많고, 평생을 미야로 사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짐이 되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조금씩으로 점점 되어 있는 듯하다. 모든 게 빨리 빠리다.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에만 집착해 있다. 때문에 인간은 문명과 체제의 종속물로 전락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즐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명과 체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미미한 부속품으로 예소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다.

체제의 주체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일순간은 마치 주도 세력인듯하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이다. 곧바로 자신도 그 거센 물살에 휩쓸려 자아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의 매듭은 대부분 죽음 이 풀어준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풍

###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부항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봄철에 산에 가면 성한 소나무 가지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굶주린 배를 부여안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물잔 소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 먹었기 때문이다.

풀의 새순도 뽑아먹느라 하루해가 지는 줄도 몰랐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럭저럭 살아남은 자들은 보리가 패기 시작하면서부터 덜 익은 보리를 구워 먹었다. 사카린을 물에 풀어 보리 찜도 해 먹었고. 그렇게도 끝맛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행복감을 느꼈다. 웃음도 많았다. 온 가족이 화기에애했다. 친구들

과도 정 있게 지냈다. 동네 사람들도 두레를 하며 즐거워했고. 환갑이나 초상이 든 집에는 모두가 막걸리, 콩나물, 떡식루 등을 형편대로 장만해서 가져가 축하해주고 슬퍼해 주었다. 그게 우리네 인심이었다.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물질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다. 사람들의 얼굴은 이제 더이상 피어나지 않는다. 동무도, 두레도, 이웃도 없다. 불과 1.5m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파트 문을 마주하지만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른다. 간혹 인심 좋은 사람이 나눠 먹기 위해 음식 가져다주면 고마워하기보다는 손뜨기쯤으로 치부한다. 그 음식도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참

로 매정스럽잖은가. 오로지 모두가 경쟁의 대상일 뿐이다. 서로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들이 허하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음에도 결핍만 느낄 뿐이다. 마치 짠 바닷물을 들이켜는 형국이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하다. 헛된 욕망이 빚어낸 참상이다. 가끔씩 부자나 높은 벼슬아치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외양상으로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많다. 그야말로 속은 중환자였던 것이다.

누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인간의 탐욕이 그들일까. 이제의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지. 누구나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 가잖은가. 하지만 탐욕이 빚어내는 문명과 체제는 그걸 막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작금의 상황은 조금씩이 정경을 낚고 그 경쟁이 문명과 체제를 강화시키고 결국 인간을 공멸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합심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고

### 겨울철 체감난방의 중요성과 스마트 난방용품의 선택 기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요즘, 우리 일상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난방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력 수급 불안정 속에서 무작정 난방기 온도를 높이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

생활 속 난방 효율을 높이고 체감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난방용품의 스마트한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첫째, 전기난방 용품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기요, 난방담요, 온열매트는 직접 체온이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은 전력으로도 높은 난방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온도 조절 기능과 자동 차단 장치를 갖춘 제품을 선택하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장시간 사용 시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어, 취침 시에는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 난방기구는 에너지 소비량 대비 난방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

전기히터, 세라믹 히터, 패널 히터 등은 열원 방식에 따라 효율이 크게 다르다. 사무실처럼 일정 방향만 따뜻하게 하면 되는 공간에서는 근적외선 히터가 적합하고, 거실처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곳에서는 대류식 히터나 패널 히터가 유리하다.

난방기 선택 시 '난방 면적(m²)' 표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를 막는 첫걸음이다.

셋째, 최근 주목받는 웨어러블 난방 제품은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다. 발열 조끼, 스마트 장갑, 온열 무릎담요 등은 고효율 배터리를 기반으로 휴대성까지 갖춰 실내·외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난방을 개별화(personal heating)함으로써 전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품종이나 1인 가구에 특히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난방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전기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전열기구의 먼지를 제거하고, 노후된 전선이나 콘센트를 교체하며, 여러 제품을 멀티탭 하나에 연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가오는 혹한기, 난방비는 줄이고 체감 온도는 높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난방이 아니라, 똑똑한 난방 전략이다. 난방용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사 경진성

## 독자투고

### 일상을 위협하는 전기화재, 작은 관심으로 예방하자

완도읍 시내와 향구, 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전통키보드,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좁고 경사진 골목과 목조·노후 주택이 많은 완도 지역 특성상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 대피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 한 해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2천1백여 건의 화재 중 566건, 약 26%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완도 역시 주택, 창고, 어선, 양식장 관리동 등에서 전기설비와 배터리 사용 중 발생한 화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충격·발열로 폭발과 독성가스를 동반해 골목형 주택이나 항구·민박 밀집 지역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기화재 예방은 거창한 대책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충전 시 주변 가연물을 정리하고, 외출·취침 중 충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정품 충전기와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하고, 노후 전선·콘센트·멀티탭은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는 통풍이 잘되는 별도 공간에서 충전하고, 어선·양식장·창고 등에 설치된 전기

설비는 정기 점검으로 과부하와 열 축적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기술의 발전은 완도의 교통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전기화재가 전체 화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위험이 곧 우리 가족과 이웃의 문제임을 일깨워 준다. 오늘 한 번 만이라도 집과 가게, 양식장과 창고의 콘센트, 멀티탭, 충전 습관을 점검해 보는 실천이야말로 완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완도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 소방교 최소벽

##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음력 10월 9일)

- 48년생 달걀꿈 호시애 신선이 부럼지 않다. 60년생 심리학과 고민으로 득실을 따져보자. 72년생 수고로운 노동을 감으로 받아내자. 84년생 지나칠 수 있는 유혹에 빠져보자. 96년생 맛있는 박수에 주인공이 되어보자.
- 51년생 유행에 민감한 멋쟁이가 되어보자. 63년생 반기는 손님맞이 회포를 풀어보자. 75년생 이해와 용서로 평화를 지켜내자. 87년생 알릴 수 없는 치지 구경에 그쳐보자. 99년생 미루고 있던 시작 출발선에 서보자.
- 54년생 동년배 최고 숨겨 자랑도 늘어간다. 66년생 경중히 거절하고 기회를 다시 하자. 78년생 일당백 자원이 수고를 덜어준다. 90년생 버는 걸음으로 반리 대신 하자. 02년생 푸루푸루 청춘 꿈을 향해 달려가자.
- 57년생 고맙다 하는 말에 진심을 담아보자. 69년생 빈 수레 요란한 귀로 돌려보자. 81년생 기쁨과 감동주는 소식을 들어보자. 93년생 끈기 와인노 허락을 받아내자. 05년생 잠시 오는 위기가 틈틈이 맞서보자.

- 49년생 늦잠부리는 대처 문제를 크게 한다. 61년생 허허호호 웃음에 기분은 날아간다. 73년생 어려운 거절로 책임을 피해가자. 85년생 미워서는 소리 화살이 되어온다. 97년생 출렁임에 비해 초라함이 남겨진다.
- 52년생 후회 없는 선택 믿음으로 지켜내자. 64년생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76년생 보람이 자궁지 아이기로 남겨진다. 88년생 사랑하고 싶은 제안을 들어보자. 00년생 배우려는 자세 모범상이 되어간다.
- 55년생 먹을거리가 풍성 전차기 벌어진다. 67년생 최고라는 자부심 비싸게 끌어보자. 79년생 은은한 향기는 민심을 가져보자. 91년생 편하지 않아도 차선으로 돌아서자. 83년생 미리 하는 준비로 예쁨을 받아내자.
- 58년생 어지러기 인기 찾는 곳도 많아진다. 70년생 능률 귀환 비단길 걸어보자. 82년생 꽃 같은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94년생 책에 있는 내용 급할수록 돌아가자. 06년생 여전히 진행 중 앞만 보고 가야 한다.

- 50년생 달걀이 높이 떨어트리는 걸 얻는다. 62년생 남의 시선에서 자유를 가져보자. 74년생 알리고 바리던 선물을 받아보자. 86년생 슬픔을 나눠주는 친구를 찾아보자. 98년생 필요한 건 경험 자극과 열매가자.
- 53년생 덕질이 성격표 체면치레할 수 있다. 65년생 축하한다. 인사감사 하받아내자. 77년생 생가는 짧게 행동으로 옮겨가자. 89년생 강이 바다로 가는 과정을 거쳐보자. 01년생 야심 찬 계획 현실에 발목 잡혀진다.
- 56년생 좋아지고 있다에 밀줄을 그려내자. 68년생 더하려는 욕심 적을 만들어낸다. 80년생 길로 물베기 싸움 이긴 척 쳐주자. 92년생 한식구 의리 단련함이 더해진다. 04년생 쉽지 않은 결정 저울질을 더해보자.
- 47년생 감사한 인연이 금한 불을 꺼준다. 59년생 비박 조였던 긴장 맥없이 풀려간다. 71년생 날은 뛰는 가슴 진정하려 애를 쓰자. 83년생 어설픈 기대 부끄럽고 창피하다. 95년생 선생님이 가르침 감명을 알아내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 1부/00원	

##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